경희대학교 서울·국제 캠퍼스 불만 및 갈등요소에 관한 연구: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에브리타임(커뮤니티)’ 비정형 데이터를 중심으로

김동구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학부생)

본 연구의 목적은 경희대학교 서울·국제캠퍼스 학생들의 불만, 갈등을 파악하여, 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경희대학교 및 구성원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재학생 7명, 국제캠퍼스 재학생 3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그룹의 결과, 불만·갈등에 관한 주제와 개선에 관한 주제 모두 3가지가 도출되었다. 문제점, 개선방안에 따라 어투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캠퍼스 이름’, ‘이원화 캠퍼스’, ‘학교 인프라’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에브리타임’ 비정형 데이터 분석은 불만·갈등 측면에서만 진단되었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현재 양 캠퍼스의 불만·갈등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은 캠퍼스별 특징, 완전 독립되어 운영되는 캠퍼스 체제로 지적되었다. 상기 결과를 기초로 이원화 캠퍼스적 관점에서 경희대학교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핵심어: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포커스그룹 인터뷰, 비정형 데이터, 이원화 캠퍼스

Ⅰ. 서론

경희대학교는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서울캠퍼스,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제캠퍼스로 나뉘어 이원화 캠퍼스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캠퍼스과 국제캠퍼스 모두 법적지위로 본교이다. ‘하나의 경희’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행정·장학·자치회를 비롯한 내부 시스템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실상은 두 캠퍼스가 아닌 두 학교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어서 경희대학교 학생들(경희대생) 사이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실업난, 학문 융합 등의 이유로 캠퍼스간 학술교류 증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대학본부나 학생회 차원에서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서울-국제 캠퍼스를 오가는 셔틀버스 배차도 적으며, 교류의 기회가 적어서 캠퍼스간 다전공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형성되어 있다. 또한 캠퍼스마다 다른 장학금 체계로 특정 캠퍼스가 차별받고 있다는 편견이 생기고 있다. 유사학과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국제캠퍼스는 분교라고 오해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점도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희대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각 캠퍼스 학생들의 불만을 볼 수 있다. 불완전한 이원화, 무책임한 대학본부의 행정으로 경희대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나,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지적보다 다른 캠퍼스를 맹목적으로 헐뜯는 ‘수평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수평폭력은 경희대생들끼리 부정적 인식, 갈등을 조장할 뿐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같은 학교 내 이원화 캠퍼스 간의 갈등을 다루는 연구가 부족했다. ‘수도권과 지방대학 한국어학습자의 격차와 원인’(이민호; 2010)처럼 수도권과 지방에 위치해 있는 다른 학교의 학습환경에 대해 다루거나, 본교와 분교의 갈등을 분교 중심으로 풀어내는 ‘대학 지방캠퍼스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송지은, 이광호; 2017)가 있었다. 이원화 캠퍼스를 다루는 논문은 수가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본교와 분교’가 아니라 ‘본교가 두 개의 캠퍼스로 운영되는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 간의 갈등을 분석함으로써 경희대학교와 구성원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분교 통합 이원화 캠퍼스를 계획하고 있는 학교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 목적을 위해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첫째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불만· 갈등 요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둘째 ‘구성원들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이다. 이를 위해 비정형 데이터인 ‘에브리타임’의 게시글, 댓글크롤링을 통한 양적 연구방법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했다.

Ⅱ. 이론적 배경

1. 분교, 캠퍼스

분교, 이원화 캠퍼스를 연구하기에 앞서 각 단어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려고 한다. 분교는 일반적으로 학습환경의 문제로 본교의 시스템에 속하지만, 본교와 지리적으로 떨어진 학교를 말한다. 초·중등 교육법에 속하는 학교(초·중·고교, 특수학교)[[1]](#footnote-1)는 읍·면·리에 속하는 촌락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에 반해 고등교육법에 속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2]](#footnote-2)는 정치적 이유로 설립된 경우가 많다.. 1970년대 말 당시 행정부는 서울의 인구집중 원인 중 하나를 유명대학 서울권 편중 현상이라고 판단했다. 개선방안으로 서울 소재 대학들에게 지방분교를 설립하게 했다.[[3]](#footnote-3)

많은 대학교들은 ‘분교’라는 표현 대신 ‘캠퍼스’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잘못된 표현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분교설립인가가 승인되어 설립된 대학으로 본교와 재정 등 제반 사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대학 분교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학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조와 제4조에 근거,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로 설치된 대학으로 본교와 그 운영을 함께하는 하나의 대학이란 개념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학교 이미지 제고 등의 이유로 분교를 분교가 아닌 캠퍼스로 명명하는 것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4]](#footnote-4) 그래서 교육부, 대학,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분교, 캠퍼스가 혼용되고 있다. 분교가 본교로 통합되거나, 정치·교육 환경적 이유로 특정 계열을 다른 캠퍼스로 보내면서 대학교가 두 캠퍼스로 나뉘는 경우가 생기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서울에 본교를 두고 지방에 분교를 운영하는 학교는 건국대학교 및 글로컬캠퍼스, 고려대학교 및 세종캠퍼스, 동국대학교 및 경주캠퍼스, 연세대학교 및 미래캠퍼스, 한양대학교 및 에리카캠퍼스가 있다. 고등교육법상 분교이지만 전부 캠퍼스라고 불리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2조와 제4조를 따르는 캠퍼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경희대학교,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홍익대학교가 있다.

2. 이원화 캠퍼스

교육부는 관련 법에서 ‘이원화 캠퍼스’라는 단어를 따로 정의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원화 캠퍼스의 의미는 고등교육법 제2조와 제4조를 따르는 캠퍼스의 정의와 같다. 이원화 캠퍼스는 ‘분교’라고 불려야 할 학교들이 ‘캠퍼스’라고 지칭하면서, 이와 구분하기 위해 ‘분교가 아닌 두 개(이상)의 캠퍼스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말 뜻만 보면 대학을 두 개 캠퍼스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지만 그 이상인 학교도 있다. 명지대학교, 성균관대학교는 인문계열/자연계열로 캠퍼스를 나누었다.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은 특성화 분야로 이원화 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연세대학교는 국제캠퍼스를 신설하면서 1학년과 소수학과를 배정하면서 학년 단위로 캠퍼스를 나누는 특이 케이스도 생겼다.

본 연구에서는 교등교육법 상 분교·캠퍼스 분류 표기가 아닌 일반적으로 학교·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캠퍼스·이원화 캠퍼스 표기를 사용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 상으로만 분교, 캠퍼스로 나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연구에 불편함이 따를 것이라 생각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에브리타임’ 데이터에서 화자가 의도한 것과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Ⅲ. 연구방법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갈등요인과 해소방안을 조사하기 위해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을 적용했다. 혼합연구방법은 한 연구 안에서 연구자가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분석·통합하는 것으로, 질·양적 연구 방법의 장점을 다 갖는다.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갖는 연구방법론이다.[[5]](#footnote-5) 질적연구방법을 먼저 진행한 다음 양적연구방법과 연계하는 연계모델을 선택했다.

먼저 경희대생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대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양 캠퍼스의 불만·갈등을 볼 수 있는 검색 키워드를 도출해내기 위함이다. 어떤 한 가지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추해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6]](#footnote-6)

1. 포커스그룹 인터뷰

가. 연구 참여자 선정

포커스그룹은 수용자의 태도와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동원되는 연구 전략이며, 보통 6~12명의 참여자를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한다. 핵심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하게 되고, 이들을 이끄는 진행자가 있다.[[7]](#footnote-7) 경희대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양 캠퍼스 자유게시판에 모집공고를 게시했다. 총 13명의 신청자를 받았으며, 이 중 캠퍼스 간 다(부)전공 이수 학생,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한 학생을 중심으로 10명의 최종 참여자를 선정했다. 모두 캠퍼스 간 교류에 관심이 많다는 속성을 가진다. 캠퍼스 간 다(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캠퍼스를 오가며, 직접 분리되어 있는 행정체계로 불편함을 경험했다.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한 학생 역시 캠퍼스끼리 분리된 체계로 함께 활동하기 어려움을 겪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가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서울캠퍼스 학생이 더 많다는 점과 국제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로 다(부)전공하는 학생이 모두 외국어대학 학생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성별, 소속 단과대학, 학년, 다전공 이수 및 시도 여부, 연합동아리 활동 여부, 캠퍼스 간 왕래 여부를 최대한 고려하여 비교적 다양한 학생들의 견해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표1 참조)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 사례 | 성별 | 소속 단과대학 | 학년 | 다(부)전공 이수 및 시도 여부 | 연합동아리 활동 여부 | 캠퍼스간  왕래 여부 |
| 1 | 남 | 정경대학 | 4 | O (외국어대학) | X | O |
| 2 | 여 | 외국어대학 | 4 | O (호텔관광대학) | O | O |
| 3 | 남 | 정경대학 | 3 | X | X | O |
| 4 | 여) | 정경대학 | 3 | X | O | O |
| 5 | 여 | 외국어대학 | 3 | O (경영대학) | X | O |
| 6 | 남 | 정경대학 | 4 | X | O | O |
| 7 | 여 | 외국어대학 | 3 | O (정경대학) | X | O |
| 8 | 여 | 호텔관광대학 | 3 | O (외국어대학) | X | O |
| 9 | 남 | 정경대학 | 3 | X | O | X |
| 10 | 남 | 정경대학 | 3 | X | O | X |

나. 조사 진행 및 자료 분석

조사는 2019년 5월 20일 2시간동안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내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신청 과정에서도 안내했듯이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연구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고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연구자가 직접 사회를 맡았고, 참여자 10명에게 공통질문을 하여 토론 분위기를 형성했다. 연구자가 조사 진행 과정을 직접 관찰하며, 인터뷰를 이끌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는 ‘재학생 입장에서 양 캠퍼스가 하나의 학교처럼 느껴지는지,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떤 점에서 이질감이 들었는지, 캠퍼스 간 갈등요소와 이를 개선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에 대해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했다.

인터뷰 조사 후 Ritchie와 Spencer가 밝힌 프레임워크 분석 5단계(친숙화 - 주제 찾기 - 색인 - 도표 작성 - 지도 작성 및 분석)에 따라 응답을 정리했다.[[8]](#footnote-8) 이 후 인터뷰 내용을 특정 카테고리로 구조화했다.

2. 비정형 데이터 수집을 통한 분석

가. 연구 문제 구체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서론에서 언급했던 연구문제를 구체화했다.

1.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불만·갈등요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2. ‘구성원들은 불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림 1> 포커스그룹 인터뷰 진행 전 연구문제

|  |
| --- |
| 1.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불만·갈등요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1) ‘캠퍼스 이름’에 대해서 캠퍼스별 관심도가 다르다.  2) 캠퍼스 별 ‘이원화’된 인프라는 두 캠퍼스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불만 요소다.  2. ‘구성원들은 불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 두 캠퍼스 학생들 모두 ‘캠퍼스간 교류 증진’을 통한 갈등해소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2) 분리된 ‘인프라를 일원화’하면 캠퍼스간 갈등이 해소될 것이다.  3) ‘통섭적 학문 환경’이 구축된다면 캠퍼스간 갈등이 해소될 것이다. |

<그림 2> 포커스그룹 인터뷰 진행 후 재설정한 연구문제

나. 검색 키워드 설정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불만, 갈등을 조장하는 소재라고 자주 언급한 것들을 검색 키워드로 선정했다.

다. 비정형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본 연구에서는 캠퍼스별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대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서울캠퍼스 자유게시판’과 ‘국제캠퍼스 자유게시판’의 게시글, 댓글을 수집했다. 게시글과 댓글은 특정 형식이 없는 비정형 데이터로 분류된다.

데이터 수집기간은 ‘2016년 3월 1일 ~ 2019년 6월 30일’로 정했다.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가장 오래된 데이터가 2016년 3월 1일이었다. 2011년부터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가 본교로 통합되어 운영되어 왔으므로[[9]](#footnote-9), 2016년에도 지금과 유사한 의견을 유지했을 것이란 전제 하에 데이터 수집을 진행했다.

동일한 키워드에 대한 데이터를 양 캠퍼스 게시판을 모두 수집하여, 캠퍼스별 학생들의 의견을 비교하기로 했다. 게시글 수, 게시글·댓글 내용을 파이썬 코드로 크롤링했다. 오픈소스<그림 1>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이용목적에 맞게 수정했다.

<https://github.com/choinamki/everytime_crawler/>

<그림 3> 오픈 소스 주소

<https://github.com/ehdrn463/KyungHeeDreamChllenge>

<그림 4> 본 연구에 쓰인 소스 주소

게시글, 댓글 내용을 ‘KR-wordrank’를 사용해 단어 단위로 나눴다. 최소 빈도 수를 설정해 통계 수치의 아웃라이어 값을 제외하고,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단어를 빈도 순으로 정리하고 txt파일로 정리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wordcloud’를 만들었다. 전처리 과정도 <그림 2>의 코드에 포함되어 있다.

Ⅳ. 연구결과

1. 포커스그룹 인터뷰

본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양 캠퍼스 불만·갈등 요소’와 ‘불만·갈등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갈등요소에 대해 논의한 후, 이를 개선할 방안들에 대해 다루었다.

1. 양 캠퍼스 불만·갈등 요소

참가자들의 불만·갈등 요소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총 3개의 주제와 10개의 하위주제로 정리되었다.

<표 2>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도출된 양 캠퍼스 불만·갈등요소

|  |  |
| --- | --- |
| 주제 (‘에브리타임’ 검색 키워드’) | 하위주제 |
| 캠퍼스 이름  (‘캠퍼스 이름’) | 서울캠퍼스·국제캠퍼스의 서로 다른 관심 정도 |
| 입사과정 중 캠퍼스·소재지 선택 |
| 주변 사람들의 분교 인식 |
| 이원화 캠퍼스 완성도  (‘이원화’, ‘이원화 캠퍼스’) | 통섭적 학문 환경 미비 |
| 명확하지 않은 캠퍼스별 특징 |
| 단과대학 이동시 우려되는 구성원들 간 갈등 |
| 학교 인프라  (‘장학금’, ‘동아리’, ‘행정’) | 장학금, 동아리, 복지, 행정 |

1) 캠퍼스 이름

참가자들은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라는 이름 자체가 구성원들 간 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체로 국제캠퍼스 학생들이 주변 사람들의 분교 인식, 학교의 분리된 행정시스템을 겪으면서 불만이 쌓였다. 이런 불만은 ‘국제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이어졌고, 캠퍼스 이름에 대한 담론이 생성되었다. 반면 서울캠퍼스 학생들은 관련 피해 경험이 적어서 캠퍼스 이름에 대한 관심이 적다. 캠퍼스간 왕래가 적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장 차이로 인한 논쟁은 ‘에브리타임’이라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① 서울캠퍼스·국제캠퍼스의 서로 다른 관심 정도

서울캠퍼스 학생들은 분교 논란이나 국제캠퍼스에 다니면서 분리된 학교를 경험하지 못해서, 국제캠퍼스에 관심 자체가 적었다. 반면 국제캠퍼스 학생들은 주변의 편견, 서울캠퍼스를 왕래하면서 국제캠퍼스의 아쉬운 점을 겪었다. 이런 문제들이 ‘국제캠퍼스’라는 이름으로 결집되었고, 이름에 관심도 많고, 바꾸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도 많았다.

“캠퍼스 이름이 갈등요소로 이어질 수 있나요?” (9, 서울캠퍼스)

“이름이 캠퍼스 간 차별을 만드는 것은 아닌데요. 현재 이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바꾸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인식적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편견을 유발하지 않는 이름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8,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분교 아니냐고 물어보면, 답하기가 애매해요. 성균관대학교는 서울은 인문캠, 수원은 자연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서울캠퍼스랑 국제캠퍼스랑 비슷한 학과가 있는데, 이런 학과에 다니는 친구들은 더 힘들어하죠.” (7, 국제캠퍼스)

② 입사과정 중 캠퍼스·소재지 선택

대학입시에서는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가 일원화되었지만 취업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입사신청서에서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소재지를 적을 때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취업준비생인데요. 경희대학교 하나의 선택지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로 나뉘어 있으면 좀 찝찝해요. 서울캠으로 체크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그렇네요.” (2, 국제캠퍼스)

“캠퍼스 분리도 그런데, 소재지를 적어야 할 경우도 문제에요. 국제캠퍼스는 수원에 있어서 수원으로 체크하면 분교로 오해받아 취업과정에서 손해를 보게 될 까봐 걱정이죠. 서울에 체크하기도 그렇고..” (7, 국제캠퍼스)

“학교에서 기업들한테 보낸 공문을 보기도 했고, 대부분 인사담당자들은 이원화 캠퍼스인 것을 알거에요.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니 다시 한 번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취업시장이 워낙 불황이다보니 사소한 것 하나하나 신경 쓰이잖아요.” (1, 서울캠퍼스)

③ 주변 사람들의 분교 인식

국제캠퍼스 학생들은 ‘수원에 있다, 국제캠퍼스에 다닌다’라는 말을 하면, ‘거기 분교 아니에요?’라고 질문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수험생활을 이겨내고 같은 경희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캠퍼스의 위치로 주위 반응이 달라졌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성균관대를 보면 인문과학, 자연과학으로 완전히 나누어 분교라고 인식하고 입학하게 된다. 우리학교는 비슷한 학과가 있어서 본교, 분교 애매한 감정을 들게 한다. 첫 인상이 내재화로 이어져서 중요한데, 우리학교는 확실히 나눠지지 않은 점 때문에 학생은 물론 주위 사람들도 헷갈려 한다. 국제캠퍼스 학생들도 분교가 아닌 것을 아는데, 외부·주변에서 자꾸 분교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노이로제다.” (1,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라고 하면, 분교 아니냐고 묻거나 시선이 조금 달라지는 걸 겪었어요.” (5, 국제캠퍼스)

“진짜 차별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으니까 이름에 신경 쓰는 것 같다.” (8, 서울캠퍼스)

2) 이원화 캠퍼스 완성도

캠퍼스를 나누어 운영하더라도 학제간 융합을 실현하려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단과대학은 같은 캠퍼스에 있는 것이 좋다. 하지만 서울캠퍼스 내의 여러 학과와 융합할 수 있는 외국어대학은 국제캠퍼스에 있다. 국제캠퍼스 내에서 외국어대학 학생들이 본전공과 융합할 수 있는 학과는 사실상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학교는 캠퍼스 통합과정에서 중복학과를 정리해왔으나 여전히 커리큘럼 상 비슷한 학과들이 존재한다. 이런 요소 때문에 캠퍼스별 특성이 반영된 이름이 지어지지 못하고, 분교라는 인식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통섭적 학문 환경 미비, 명확하지 않은 캠퍼스 별 특징이 이원화 캠퍼스 운영을 막는 장애물로 분석되었다. 학제간 융합을 고려해 단과대학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형성되었다.

① 통섭적 학문 환경 미비

서울캠퍼스의 호텔관광대학, 정경대학과 국제캠퍼스의 외국어대학은 학제간 융합 잠재력이 크다. 호텔·관광사업은 영어권 외국인 외에도 제2외국어가 필요하다. 무역학과나 정치외교학과는 국제관계와 지역학까지 겸비해야 한다.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계약체결, 국제관계에 대한 수월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취업에 유리한 학위를 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연계가 잘 되어 있다면 학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도 좋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 채용공고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다.

“저는 외국어대학 소속이에요. 저는 유럽어권 언어 전공인데 공대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학과에서 관광대학이나 무역학과와 연계하는 융합전공을 추진하려 했는데, 관련 인프라가 없어서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와 엮였어요.” (5, 국제캠퍼스)

“저는 정치외교학과인데 지역학 기반인 교수님들도 계셔야 하는데, 중국과 일본만 계세요. 유럽어권 교수님들은 외국어대학에 있으시니까 지도를 받을 수 없어요. 남미 관련 논문을 서울캠 교수님께 드리니까 모르는 내용이라 지도해줄 수가 없대요. 그렇다고 처음 뵙는 국제캠 교수님께 부탁드릴 수도 없어요.” (1, 서울캠퍼스)

“남미에서 인턴 생활을 했고, 국제기관에서 남미쪽으로 일하고 싶은데 정보가 없어요. 남미 정치기관이면 정치외교학과에는 공고가 나지 않고, 스페인어학과에만 나요. 콜롬비아 상무국 공고를 어떻게 알게 되어서 추천서를 받으려니 국제캠퍼스를 오가야 돼서 힘들었죠.” (1, 서울캠퍼스)

“저는 프랑스어학관데 언론정보학과 수업을 듣고 있어요. 이게 취업보단 배우고 싶어서 하거든요. 배우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외국어대학보다는 학원이 좋다고 하는데, 복수전공은 다르잖아요. 학원에서는 자격증은 딸 수 있어도, 문화는 못 배우잖아요. 캠퍼스 간 연계전공이 확대되면 배움, 취업의 질 모두 올라갈 것 같아요.“ (7, 국제캠퍼스)

② 명확하지 않은 캠퍼스별 특징

서울캠퍼스는 순수학문, 국제캠퍼스는 응용학문 중심이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논의되었다. 학문을 순수, 응용으로 나누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단과대학 조정을 통해서 캠퍼스별 특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원화를 완전히 했으면 하는 의견이 조성되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분교인식을 줄이고, ‘하나의 경희’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줄 것으로 보았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과나 한국어학과 친구들은 영어학부나, 국문과랑 뭐가 다르냐고 질문받으면 할 말이 없대요.” (7, 국제캠퍼스)

“문과는 외국어대학, 이과대학은 공대로 복수전공을 이수하고 싶어하는데, 캠퍼스가 떨어져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시너지가 나는 캠퍼스끼리 붙는 식으로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시간을 들이면서 정리해야 한다고 봐요.” (8, 서울캠퍼스)

“서울캠퍼스의 이과대학, 국제캠퍼스의 응용과학대학은 이름, 커리큘럼 모두 비슷해요. 서울캠은 물리학과면, 국제캠은 응용물리학과에요. 내부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중복학과죠.” (10, 서울캠퍼스)

③ 단과대학 이동시 우려되는 구성원들 간 갈등

단과대학 위치 조정으로 학제간 융합을 살리고 분교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현 체제에 적응되어 있거나 불만이 없는 구성원들에게 변화를 요구한다면 갈등이 생길 것을 염려했다. 학생, 교원, 직원 다양한 입장들이 얽혀 있어서 오랜 시간 협의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직접 통합에 나서기에는 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관련 권한이 큰 총학생회, 교수 평의회에서 나서서 통합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논의되었다.

“어떤 단과대는 관심이 없고 어디는 있고 하니까, 목소리가 쉽게 모이지 않는다.” (9, 서울캠퍼스)

“외국어는 혼자 배우면 된다는 생각에 서울캠에서 외국어를 다전공하려고 국제캠으로 가지 않는다.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저 같은 사람들은 굳이 캠퍼스간 통합에 나서지 않을 것 같아요.” (3, 서울캠퍼스)

“교수님쪽을 설득시키려고 나서야하는 이유는 대부분 서울캠 학생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네 학교는 분교 이런 경험을 겪지 못했고, 국제캠에 가야할 경우도 적어요. 저는 친구들이 국제캠에 좀 있어서 문제를 이해하는데, 보통은 모르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의 일원으로 설국 전체가 나서야하는데 노력이 부족해요. 서울캠 학우들도 이원화 구조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면 관심이 갈 것 같네요.” (6, 서울캠퍼스)

“학생들끼리 캠퍼스간 통합을 얘기해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은 이 문제를 몰라요. 학생들 차원에서도 양캠 총학이 공동성명서를 내면서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의견전달 매개체가 없어요.” (1, 서울캠퍼스)

“서울-국제캠퍼스 모두 같은 경희대생이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없애야 하죠. 나는 피해받는 게 없으니깐 무관심한 태도는 사회의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다만 계속 논의된 것처럼 불분명한 캠퍼스 특징 때문에 분교 인식이 남는 것 같아서, 단과대학 조정은 필요해요.” (4, 서울캠퍼스)

3) 학교 인프라

참가자들은 행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 때문에 곤혹을 치룬 경험이 있다고 했다. 캠퍼스 별로 장학금이 운용되어 국제캠퍼스 학생이 서울캠퍼스 장학을 신청하면 거절된다. 행정실에 문의사항을 여쭤보면, 다른 캠퍼스 업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서울캠퍼스 학생이 국제캠퍼스 중앙동아리 정회원이 될 수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아서 다른 학교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취업행사도 국제캠퍼스는 자연계열, 서울캠퍼스는 인문계열로 몰려 있어서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는 것도 좋지만, 단과대학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① 장학

“장학금이 캠퍼스별 단과대 등록금으로 분리되어서 운영되는 것은 알겠는데, 다른 학교도 다 단과대마다 등록금이 다르다. 그래도 등록금을 내면 장학금 혜택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캠퍼스마다 자격조건을 제한해버리면 같은 학교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요?” (3, 서울캠퍼스)

“서울캠 학생은 국제캠 장학안되고, 국제캠 학생은 서울캠 장학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장학금도 다르고 운영체도 달라서 그렇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저는 이부분이 차별과 관련된다고 생각해요. 본전공을 빨리 채우고, 다른 캠퍼스로 다전공을 이수하면 어디에서든 장학금을 못받거든요.” (8, 서울캠퍼스)

“서울캠은 모자이크, 꿈도전장학이 있지만 국제캠은 둘 다 없어요.” (10, 서울캠퍼스)

② 동아리

“서울캠퍼스 중앙동아리는 재학 중인 설캠 학생만 정회원, 휴학생·국제캠·사이버대학·평생교육원·대학원생은 전부 준회원이에요. 설캠 이외의 학생은 정회원이 될 수 없죠.” (10,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중앙동아리에서도 서울캠퍼스 학생 가입에 조심스러운 게, 국제캠퍼스 학생이 서울캠 중앙동아리에 들어가기 힘들어서… 국제캠퍼스도 소극적이에요.” (2, 국제캠퍼스)

③ 복지

“서울캠퍼스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국제캠 친구가 놀러왔다가 살이 찢어진 적이 있었어요. 공사현장을 막지 않아서 잘못 들어갔었어요. 학교내 사고 보상신청하러 갔는데, 국제캠 학생은 국제캠퍼스 내 사고에만 보험이 적용된다는 거에요. 서울캠과 국제캠 보험회사가 달라서 적용범위가 제한된대요. 정말 다른 학교라고 느꼈죠.” (6, 서울캠퍼스)

“취업설명회도 보면 서울캠은 다 문과, 국제캠은 다 이과에 몰려 있어요. 국제캠의 문과, 서울캠의 이과는 취업설명회를 들으러 가기가 힘들어요.” (2, 국제캠퍼스)

“서울캠은 생협이 있고 국제캠은 없는데요. 이것은 사정이 다르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국제캠 학생은 서울에서 다전공을 이수해도 생협을 가입 못하더라구요. 이건 문제인 것 같아요.” (2, 국제캠퍼스)

④ 행정

“도서관 예산이 별도로 운영되어서 불편하다. 서울캠은 자격증·어학 서적 구입을 못해서 신청해도 거절당한다. 관련 예산이 국제캠퍼스에 책정되어 있어서, 국제캠퍼스에서 구입하면 서울캠으로 가져오는 구조다.” (1, 서울캠퍼스)

“행정시스템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관련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같은 학교라고 느끼기 힘들다. 총학, 총동연, 후마칼리지위원회 같은 경우도 통합된 형태에서 갈라지는 것이 맞는데, 처음부터 분리되어서 운영되어서 서로에 관심이 있을 수가 없다.” (1, 서울캠퍼스)

“캠퍼스 별로 재정을 운영하던 것을 일원화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게, 어떻게 통합할지 어떻게 다시 분배할지 문제가 많아요. 또 단과대학 별로 자율권이 커서 학교 입장과 단과대학 입장이 다르기도 해서 더욱 조심해야 해요” (10, 서울캠퍼스)

“캠퍼스 간 다전공을 이수하다보면 행정실에 물을 게 많아요. 서울캠, 국제캠 행정실에서 서로 미룰 때가 많더라구요. 제대로 통합되어 있으면 이럴 일이 없을텐데, 분리되어 있어서 그런지 책임을 미뤄요.” (8, 서울캠퍼스)

4) 캠퍼스별 성과

‘에브리타임’을 이용하다보면 자주 볼 수 있는 갈등은 ‘성과’에 관한 내용이다. 입학성적, 취업률 등 눈에 보이는 수치를 둘러싼 논쟁이 많았다. 하지만 포커스그룹 내에서는 대부분이 익명성을 무기로 소수가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동의했다. 내재된 폭력성을 인터넷에서 분출하는데 그것의 수단으로 인풋, 아웃풋이 활용됐을 뿐이라고 했다. 또한 요즘은 수시전형이 많아져서 입학성적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캠퍼스별 성과에 대한 갈등은 인터넷상에서만 드러나는 것으로, 에브리타임 데이터를 참고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나. 불만·갈등 해소 방안

참가자들의 불만·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분석한 결과, 총 3개의 주제와 4개의 하위주제로 <표 3>과 같이 정리되었다. 참가자들은 갈등이 캠퍼스 구성원 간 소통 부재, 행정 이원화, 통섭적 학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갈등 해소를 원인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표 3> 양 캠퍼스 불만·갈등 해소 방안

|  |  |
| --- | --- |
| 주제 (‘에브리타임’ 검색 키워드’) | 하위주제 |
| 캠퍼스 간 교류 증진 | 캠퍼스 간 셔틀버스 증편·전과 증원 |
| 정보 커뮤니티 구축 |
| 연합동아리, 축제 활성화 |
| 인프라 일원화 | 행정, 장학, 자치회, 동아리 일원화 |
| 통섭적 학문 환경 구축 | 단과대학 위치 조정 및 학제적 연구 증진 |

1) 캠퍼스 간 교류 증진

캠퍼스간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었다. 다른 캠퍼스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서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부재하는 것도 캠퍼스 간 교류를 막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① 캠퍼스 간 셔틀버스 증축·전과 증원

캠퍼스를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려면 편도 2시간 정도가 걸리지만, 셔틀버스(설국버스)를 이용하면 1시간이 걸린다. 셔틀버스는 하루에 8회만 운영되어 이용에 제약이 크다. 또한 캠퍼스 간 전과는 캠퍼스 내에 비해 허용인원이 적어 교류의 제약이 크다.

“설국버스 증편이 꼭 필요해요. 국제캠에서 서울캠으로 오는 것은 비교적 많은데, 서울캠에서 국제캠으로 가는 것은 적어요. 운영비용이 문제라면 금액을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설국버스 타면 환승없이 1시간 만에 가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시간 걸려서 교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2000원으로 올리는 대신 배차간격을 좁힌다면 학생들은 좋아할거에요. 서울에서 같이 활동하고 싶어하는데, 이동시간에 지쳐버려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2, 국제캠퍼스)

“연세대학교는 송도캠퍼스가 생기고나서 동아리 운영이 잘 안 될까봐, 통학버스를 많이 운영하고 있대요. 그래서 송도캠-신촌캠 간에 교류도 활발하고, 동아리 운영이 잘된대요. 교류가 시작되면 학술동아리처럼 목적성이 분명한 모임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이게 되어 있어요.” (1, 서울캠퍼스)

“저는 외국어대학 소속인데요. 언어가 맞지 않아서 전과를 하려고 했는데, 캠퍼스 간 전과가 과탑이 아니면 힘들더라구요. 근데 국제캠퍼스 내에서 문과가 갈 수 있는 곳은 외국어대학, 국제대학이 전부인데 다 언어 관련 학과라서 선택권이 사실상 없어요.” (5, 국제캠퍼스)

② 정보 커뮤니티 구축

캠퍼스간 교류를 하는 학생들은 지리적 요인도 있지만, 정보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고 한다. 소수의 사람마저도 뭉치지 못하고 흩어져 생활하고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학교, 학과, 학생회, 동아리 대부분이 정보를 공지하는 플랫폼이 달라서 접근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보 커뮤니티를 구축한다면, 교류를 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총학생회 홈페이지, info21 등 모든 학생들이 아는 플랫폼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정보가 흩어져 있으면 협력은 불가능할 것이다.” (10, 서울캠퍼스)

“저희 학과는 족보대로 나오는 게 많아서 족보가 중요해요. 다전공생들은 사실상 족보를 얻을 수 없어서 적응하기 어려워요.” (3, 서울캠퍼스)

“다전공하는 과에서 팀플을 하다가 아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전에는 학과 정보를 하나도 얻지 못했는데, 사람을 사귀면서 페이스북 페이지로 정보를 공지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단과대, 학과행사, 장학 정보를 통합해서 전달해주는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어요.” (2, 국제캠퍼스)

③ 연합동아리·축제 활성화

입학식 외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가 만나는 자리가 없어서 같은 학교라고 생각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자연스레 서로 무관심해지고, 구성원들의 불만은 서로에게 향했다.

“캠퍼스 특성상 서울캠은 문과생, 국제캠은 이과생이 많은데 동아리라도 같이 하면서 견문을 넓히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잘 모르니 홍보기간에 같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기간에 특정공간을 지정해 다른 캠퍼스의 동아리를 홍보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10, 서울캠퍼스)

“축제도 하루 정도는 설국교류전으로 같이 노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국제캠에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해도 안 가잖아요. 고려대, 연세대학교는 다른 학교여도 같이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셔틀버스 증편 같은 환경이 구축되면,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교류가 늘어날 거에요.” (4, 서울캠퍼스)

2) 인프라 일원화

① 행정, 장학, 자치회, 동아리 일원화

행정, 장학, 자치회, 동아리들이 전부 캠퍼스 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독립적인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하나의 학교라고 인식하기가 힘들다고 했다.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도 어렵다. 모두 분리되어 있어서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총학이든, 학교든 캠퍼스 교류·협력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처럼 쉬쉬하는 구조면 문제해결은 사실상 어렵죠. 행정적으로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학생들도 같은 학교라는 생각이 들고, 가능한 정책들이 많아요.” (1, 서울캠퍼스)

“캠퍼스 별로 장학금 혜택이 다르니까 다른 학교처럼 느껴져요. 계속 분리되어 운영된다면 상관없겠지만, 같은 학교고 협업해야 할 부분이 생기면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죠. 이런 사소한 게 쌓여서 갈등요인이 된다고 봐요” (7, 서울캠퍼스)

“국제교류처는 서울캠, 국제캠 합쳐져 있어서 최근에 같이하는 활동이 쉽게 계획됐어요. 이런 식으로 부처가 통합되어 있다면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수월할 거에요.” (2, 국제캠퍼스)

“연합동아리라고 말하지만,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에요. 공식적으로 학교의 인가를 받은 것은 아니고, 서울-국제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원이 없다보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같이 활동하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서로에 대한 이해도 증가하고 갈등도 줄어들 거에요.” (4, 서울캠퍼스)

“동아리 홍보기간에 교류로 홍보하면서 활동하는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존재 자체를 모르는데, 교류를 어떻게 할까요?” (10, 서울캠퍼스)

3) 통섭적 학문 환경 구축

학문 간 융합을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학과들이 지리적 장애로 연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런 학과들이 통섭적 연구가 가능해지도록 학교 측에서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다고 논의됐다.

① 단과대학 위치 조정 및 학제적 연구 증진

“서울캠퍼스 이과대학 친구들이 기초학문이라 취업이 힘들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공과대학이랑 복수전공이든, 융합이든 할 수 있도록 단과대 위치가 조정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국제캠퍼스에 가서 복수전공을 하고 싶다는 친구들도 많더라구요.” (10, 서울캠퍼스)

“한국외대는 언어랑 사회과학이 같이 있어서 지역학이 강해요. 실용과 순수학문을 가지고 있어서 BK, HK를 잘 따가요. 그런데 우리는 물리적 거리가 있고 연계가 하나도 없어요. 학문이 확장되기가 힘들어요. 단과대학이 조정되든, 학제적 연구가 증진되면 좋겠어요.” (1, 서울캠퍼스)

“호텔관광대학과 외국어대학을 복수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위 사람들을 보면, 제2외국어를 할 줄 아는 것이 진로에 유리해요. 그런데 국제캠퍼스에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학문적 이유가 아닌 외적인 이유로 포기하는 학생들을 줄이려면, 연계를 늘려야 해요.” (8, 서울캠퍼스)

“외국어대학은 국제캠퍼스 내에서 고립되어 있고, 그래서 캠퍼스 간 다전공을 시도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적성에 맞지 않으면 전과하기도 힘들죠. 캠퍼스 이동이나 연계전공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해요.” (5, 국제캠퍼스)

2. 비정형 데이터 분석

캠퍼스간 갈등, 불만, 협력 요소로 선정된 키워드들에 대한 의견을 비교하기 위해 두 캠퍼스 게시판의 데이터를 먼저 수집했다. 비정형 데이터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텍스트마이닝 기술 중 하나인 자연어처리, 워드클라우드를 실시했다. 빈출단어는 상위 15개기준으로 끊었으며, 워드클라우드는 60개의 단어가 나오도록 설정했다. 빈출단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의 수치는 높을수록 그 단어가 많이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의 불만·갈등요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1) ‘캠퍼스 이름’에 대해서 캠퍼스별 관심도가 다르다.

‘캠퍼스 이름’을 검색했을 때 같은 기간동안, 국제캠퍼스 게시판은 76개, 서울캠퍼스 게시판은 62개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있는, 나는, 우리, 캠퍼스, 것이’가 상위 1~5위를 기록했는데, 국제캠퍼스는 ‘경희대, 이름, 캠퍼스, 학교, 국제’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단어의 빈도 자체도 전체적으로 국제캠퍼스가 높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 드러났듯이, 국제캠퍼스 학생들에 비해 서울캠퍼스 학생들이 ‘캠퍼스 이름’에 관심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출 단어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은 고민하는 방향성이 다르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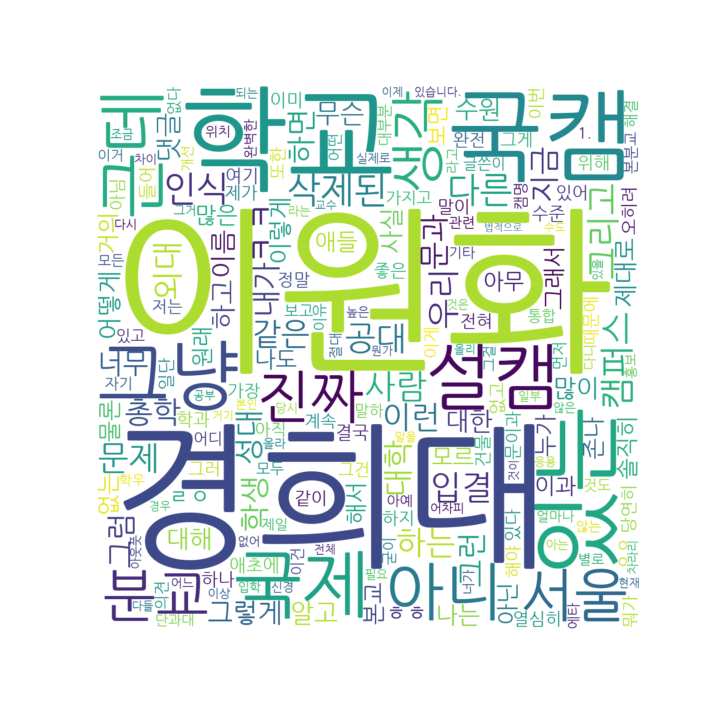
<그림> 국제캠퍼스 워드클라우드 <그림> 서울캠퍼스 워드클라우드

<그림 5> 양 캠퍼스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 ‘캠퍼스 이름’ 검색 결과

2) ‘불완전한 이원화 캠퍼스’ 구조는 두 캠퍼스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불만 요소다.

‘이원화’를 검색했을 때 국제캠퍼스는 289개, 서울캠퍼스는 139개의 게시글이 작성되었다. ‘캠퍼스 이름’과 마찬가지로 ‘이원화’에 대한 관심도도 국제캠퍼스가 더 높았다. ‘이원화’ 검색 결과는 ‘캠퍼스 이름’에 비해 비교적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가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 캠퍼스 학생들 모두 고민하는 방향성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원화’는 두 캠퍼스 모두 공통적인 불만 요소로 작용하다고 추론 가능하다.

<그림 6> 양 캠퍼스 ‘이원화’ 자유게시판 ‘캠퍼스 이름’ 검색 결과

<그림> 국제캠퍼스 워드클라우드 <그림> 서울캠퍼스 워드클라우드

나. ‘구성원들은 불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 두 캠퍼스 학생들 모두 ‘캠퍼스간 교류 증진’을 통한 갈등해소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에브리타임’에 ‘캠퍼스간 교류 증진’과 관련된 키워드인 ‘캠퍼스 교류, 설국 교류’, 포커스그룹에서 관련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셔틀버스 증축, 캠퍼스 전과, 캠퍼스간 전과, 연합 축제·대동제, 연합 동아리’를 검색해보았다. 하지만 게시글 수가 10개가 되지 않거나, 단어는 같으나 본 연구에서 추구하지 않은 홍보게시글이 많았다. 데이터의 양이 적거나 질이 적절하지 않아서 데이터분석을 하기에는 부적절했다.

2) 분리된 ‘인프라를 일원화’하면 캠퍼스간 갈등이 해소될 것이다.

인프라 일원화와 관련되거나 포커스그룹에서 제시되었던 ‘행정, 행정 일원화, 장학(금), 장학(금) 일원화, 자치회, 자치회 일원화’를 검색해보았으나, 게시글 수가 10개가 되지 않거나 본 연구와 관련되지 않은 글들이 많았다. 이 경우도 ‘에브리타임’ 비정형 데이터로 분석하기에 적절하지 못했다.

3) ‘통섭적 학문 환경’이 구축된다면 캠퍼스간 갈등이 개선될 것이다.

‘관련 단어나 포커스그룹에서 제시되었던 ‘통섭, 학제, 융합, 단과대 조정’을 검색해보았으나, 게시글 수가 10개가 되지 않거나 본 연구와 관련도지 않은 글들이 많았다. 이 경우도 ‘에브리타임’ 비정형 데이터로 분석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Ⅴ. 결론 및 한계

본 연구는 경희대학교 국제·서울캠퍼스 학생들의 불만과 갈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캠퍼스 간 왕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서울캠퍼스 7명, 국제캠퍼스 3명을 선벌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분석했다. ‘에브리타임’ 비정형 데이터 중심으로 결론을 서술하려 했으나, 연구자의 데이터 처리능력 부족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데이터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 결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양 캠퍼스 불만,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양 캠퍼스 학생들은 ‘캠퍼스 이름’에 대한 관심이 다르다. 서울캠퍼스 학생의 경우 분교에 관한 논란을 겪은 적이 없고, 비교적 국제캠퍼스에 가는 경우가 드물고 독립된 행정 체계로 피해를 본 경험이 적다. 국제캠퍼스 학생은 주변인의 분교인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가 많고, 서울캠퍼스를 오가며 독립된 행정체계로 곤혹을 겪었다. 이런 경험적 요소가 ‘캠퍼스 이름’에 대한 다른 관심도를 낳았다. 서울캠퍼스는 캠퍼스 이름을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없는 반면, 국제캠퍼스는 여러 불만이 누적되면서 캠퍼스 이름을 재고하게 되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에브리타임’ 데이터 모두 국제캠퍼스 학생들이 ‘이름’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이름’ 자체가 불만,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양 캠퍼스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겪은 기대치와 현실의 차이로 인한 불만, 갈등이 ‘이름’으로 합산된 것이었다. ‘이름’을 어떻게 바꾸자는 논의보다, ‘하나의 경희’가 아닌 서로 다른 ‘학교’처럼 느끼게 하는 요소들을 개선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을 시사했다. 다만 학교차원에서 기업들에게 협조공문을 다시 한 번 보내어, ‘캠퍼스·소재지’를 선택할 때 생기는 찝찝함, 혼란감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

둘째 현재 이원화 캠퍼스 구조에 대한 구성원들의 논의가 필요하다. 캠퍼스별 단과대학 배치, 행정·장학·동아리 등을 포함한 내부 인프라를 한 번 되짚어 봐야한다. 기초학문, 응용학문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캠퍼스를 분리해서 학습환경에 피해를 보거나, 중복학과 논란을 키우는 단과대학이 있다. 이런 단과대학 소속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학습에 지장을 받고, 학과 정체성 혼란으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외부사람들은 비슷한 학과가 있으니 국제캠퍼스는 분교라는 생각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는 내부인프라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혜택은 특정 캠퍼스로 한정된다. 캠퍼스를 왕래하면서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혜택들을 받지 못하게 되어 학생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제2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재정을 일원화한 학교들 중 일부는 서울에 집중 투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재정·행정 이원화를 유지하는 경희대학교의 선택이 잘못됐다고만 할 수 없다. 학교 본부 측의 설명으로 경희대생들이 수긍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캠퍼스 특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단과대학이 이동해야 할 수도 있다. 많은 구성원들이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현재 불만을 구조적으로 키운 이원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캠퍼스 간 교류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양 캠퍼스 학생들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불만·갈등이 가중되기도 한다. 인종차별이 무지로 인한 두려움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두 캠퍼스 입장 차이를 서로가 이해하게 되면 갈등은 더 개선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캠퍼스 간 교류가 증진되어야 한다. 대부분 경희대학교 학생들은 다른 캠퍼스에 가보지 못하고 졸업한다. 가기도 힘들고, 같이 진행하는 행사도 없고, 캠퍼스 간 전과나 다전공을 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셔틀버스 증편, 연합 동아리·축제, 전과 TO 증원을 통해 교류를 늘려야 한다. ‘에브리타임’ 내에서 동문 간 연대감이 부족해서 취업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취업 후에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캠퍼스 간 교류가 늘어나면 이런 점들도 어느 정도 개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한계점도 명백하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가자가 서울캠퍼스 학생이 많고 특정 단과대학 학생으로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1차 인터뷰로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의견을 담지 못했다. 양 캠퍼스 모두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참여자로 선정했으나, 이것 자체가 의견을 편중시켰을 수도 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에브리타임’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연계하여 진행했으나 부족했다. 빈출된 단어를 통한 대략적인 의견을 분석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에브리타임’은 익명성에 기반해 현실보다 조금 더 공격성을 띤다는 점과 생산적인 개선방안보다는 불만표출 중심의 글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조금 더 기술이 보완된다면 딥러닝과 감성분석을 적용해 내용분석을 자동으로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사안에 대한 찬성, 반대, 중립 등 세부적인 의견을 분류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불가능했다.

본 연구는 경희대학교 학생들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 간의 불만, 갈등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살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기서 제시된 방안이 꼭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연구로 인해 캠퍼스 간 서로에 대한 관심을 증진되었으면 한다. 궁극적으로 경희대학교 학생들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고등교육법. 제1장. 제2조(2011)

김희집(1985). 오늘의 지방분교 시책 이대로 좋은가, 대학연구, 14, 112-114

부수정(2011). 경희대 중앙대 누가 앞서나…'본·분교 통합'으로 도약 선언. 한국경제

송지은, 이광호(2017). 대학 지방캠퍼스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24(4), 98

초·중등교육법. 제1장. 제2조(2012)

Creswell, J. (200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Krueger, R. A., & Casey, M. A. (2000).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Ritchie, J. & Spencer, L.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for applied policy research" by Jane Ritchie and Liz Spencer in A. Bryman and R. G. Burgess [eds.] “Analyzing qualitative data”, 1994, pp.173- 194.

Roger D. W., & Joseph R. D. (2015). Mass Media Research An Introduction. WADSWORTH CENGAGE Learning

1. 초·중등교육법. 제1장. 제2조(2012) [↑](#footnote-ref-1)
2. 고등교육법. 제1장. 제2조(2011) [↑](#footnote-ref-2)
3. 김희집(1985). 오늘의 지방분교 시책 이대로 좋은가, 대학연구, 14, 112-114 [↑](#footnote-ref-3)
4. 송지은, 이광호(2017). 대학 지방캠퍼스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24(4), 98 [↑](#footnote-ref-4)
5. Creswell, J. (200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footnote-ref-5)
6. Roger D. W., & Joseph R. D. (2015). Mass Media Research An Introduction. WADSWORTH CENGAGE Learning [↑](#footnote-ref-6)
7. Krueger, R. A., & Casey, M. A. (2000).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footnote-ref-7)
8. Ritchie, J. & Spencer, L.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for applied policy research" by Jane Ritchie and Liz Spencer in A. Bryman and R. G. Burgess [eds.] “Analyzing qualitative data”, 1994, pp.173- 194. [↑](#footnote-ref-8)
9. 부수정(2011). 경희대 중앙대 누가 앞서나…'본·분교 통합'으로 도약 선언. 한국경제 [↑](#footnote-ref-9)